

2027학년도 비욘드 모의평가 2회 해설지

영어 영역

정답 및 해설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1			13			25	③	2	37	⑤	3
2			14			26	③	2	38	⑤	2
3			15			27	⑤	2	39	④	3
4			16			28	④	2	40	①	2
5			17			29	②	3	41	②	2
6			18	③	2	30	④	2	42	②	3
7			19	⑤	2	31	②	3	43	④	2
8			20	②	2	32	④	2	44	⑤	2
9			21	⑤	2	33	①	2	45	②	2
10			22	①	2	34	③	3			
11			23	①	3	35	④	2			
12			24	④	2	36	③	2			

18

정답 ③

해석

학부모님 및 보호자님께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교는 올해 졸업앨범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앨범 사진 촬영은 8월 16일 강당에서 진행되며, 올해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된 Bright Moments Studio가 맡을 예정입니다. 촬영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서 귀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학교 포털이나 첨부된 양식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Sandra Hayes 교장 드림

해설

학교 측이 “To finalize the shoot list, we need your confirmation”, “Please reply by June 30 to let us know whether your child will be participating” 등을 통해 졸업사진 촬영 명단 확정을 위해 자녀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어휘

- |                |                       |
|----------------|-----------------------|
| guardian 보호자   | semester 학기           |
| graduation 졸업  | auditorium 강당         |
| bidding 입찰     | process 과정            |
| finalize 확정하다  | confirmation 확인       |
| reply 회신하다     | participate 참여하다      |
| attached 첨부된   | appreciate 감사하다, 감상하다 |
| cooperation 협조 |                       |

19

정답 ⑤

해석

Clara는 어렸을 때 이후로 그 산길에 다시 가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길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항상 그와 함께 걸던 길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흐린 하늘 아래, 길은 한 번 이상 갈라졌고, 그녀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땅을 바라보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잡초가 길을 따라 퍼져 있었고, 오래된 나무 표지판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 걸었고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구름이 걷혔다. 옅은 빛이 산비탈을 휩쓸었고, 아래로 계곡이 펼쳐졌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찾기를 바라왔던 그 풍경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자기 앞에 펼쳐진 풍경에 눈을 고정했다.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해설

Clara가 더 이상 곁에 없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갈라진 길 앞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무거운 어깨로 걷고 있다가, 구름이 걷히며 오랫동안 찾기를 바라왔던 계곡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 풍경에 눈을 고정한 채 그 순간을 간직하려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고 있으므로, Clara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걱정하는 → 안도한’이다.

어휘

- |                                 |                |
|---------------------------------|----------------|
| trail 산길                        | split 갈라지다     |
| pause 멈춰 서다; 멈춤                 | stare 바라보다     |
| weed 잡초                         | spread 퍼지다     |
| nowhere to be seen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다 |                |
| pale 옅은                         | sweep 휩쓸다      |
| hillside 산비탈                    | fix 고정하다       |
| reach for ~을 향해 손을 뻗다           | regretful 후회하는 |
| indifferent 무관심한                |                |

20

정답 ②

해석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생각은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가정은 법체계에도 내재되어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공식 조사는 원인을 규명하려 하는데, 흔히 그 비난은 “인간의 실수”로 돌려진다. 관련된 사람은 벌금을 물거나 처벌받거나 해고될 수 있고, 그러면 법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는 대개 부실한 설계에서 비롯되므로, 그것은 시스템 오류라고 불러야 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른다. 그것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며, 시스템 설계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비난을 떠넘기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왜 그 시스템은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행동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바뀌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오류가 발생하도록 허용한 시스템이다.

**해설**

[논증 구조]

사고 시 개인 비난: 사회·법체계에 뿌리박힌 가정 → 사고 조사는 흔히 “인간의 실수”로 귀결, 개인 처벌로 종결 → 그러나 인간의 실수는 부실한 설계의 결과이므로 시스템 오류로 불러야 함 [추정] →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는 존재이므로 설계가 이를 고려해야 함 → 바뀌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결론]

[정답 논리]

사고가 발생하면 법체계에 흔히 “인간의 실수”로 원인을 규명하고 개인을 처벌하는 데서 문제를 종결한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는 대개 부실한 설계에서 비롯되므로 시스템 오류로 불러야 하며, 인간이 끊임없이 실수하는 것은 본성의 일부이므로 시스템 설계가 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행동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며, 바뀌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자의 핵심 주장이므로,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 논리]

- ① 한 사람만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지문은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행동이 재앙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을 뿐, 한 사람의 행동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논지와 무관.
- ③ 인간 오류와 시스템 오류를 구분해서 조사: 지문은 인간의 실수를 시스템 오류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둘을 별개로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논지와 맞지 않음.
- ④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문은 개인에게 비난을 떠넘기는 것이 편할 뿐 해결책이 아니라고 명시했으므로, 처벌 강화는 논지와 정반대.
- ⑤ 법체계가 처벌 수위를 조절: 인간의 본질적 한계(끊임없는 실수)는 지문에 언급되나, 필자의 주장은 처벌 수위 조절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자체의 전환이므로 논지와 무관.

**어휘**

at fault 잘못이 있는	blame 비난하다; 비난
assumption 가정	embed 내재시키다
legal 법의, 합법적인	accident 사고
investigation 조사	determine 규명하다, 결심하다
more often than not 흔히	attribute to ~로 돌리다
fine 벌금을 물리다; 벌금	punish 처벌하다
fire 해고하다	err 실수를 저지르다
continually 끊임없이	nature 본성, 자연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pin the blame on ~에게 비난을 떠넘기다	
comfortable 편한	disaster 재앙

21

**정답** ⑤

**해석**

그리스 예술가들이 돌로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집트인들과 아시리아인들이 중단했던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리스 예술가들은 이집트의 모델들을 연구하고 모방했으며, 그들로부터 서 있는 짧은이의 형상을 만드는 법과 신체 부위의 구분과 신체를 결합하는 근육을 표시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러한 조각상을 만든 예술가는 아무리 좋은 공식이라도 그저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스스로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릎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는 데 분명히 관심이 있었다. 어쩌면 그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의 조각상 무릎은 이집트 조각상의 무릎보다 훨씬 덜 설득력 있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가 오래된 규범을 따르는 대신 스스로 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다. 그것은 더 이상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 기성 공식을 학습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그리스 조각가는 자신이 특정한 신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이집트인들은 지식에 기반을 두고 미술을 했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끝이 감각의 판단에 답하도록 했다. 일단 이 혁명이 시작되자, 그것을 멈출 방법은 없었다.

**해설**

[논증 구조]

그리스 예술가: 이집트 모델을 학습 → 기성 공식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실험(무릎의 실제 모습 탐구) → 오래된 규범 대신 직접 보기로 결심 → 이집트: 지식 기반 / 그리스: 감각의 판단에 답함(밀줄) → 멈출 수 없는 혁명

[정답 논리]

그리스 예술가는 이집트로부터 물려받은 기성 공식을 그대로 따르는 데 만족하지 않고, 무릎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스스로 알아내고자 했다. 결과가 이집트 조각상보다 설득력이 떨어지더라도, 핵심은 그가 오래된 규범 대신 직접 보기로 결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식에 기반한 이집트 미술과 대비되어, 그리스인들이 끝을 감각의 판단에 따르게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계승된 공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찰·경험을 따랐다는 의미이므로, 밀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계승된 도식보다는 직접적인 마주침을 따랐다’이다.

[오답 논리]

- ① 예술적 전통에서 방치되었던 관행들을 되살렸다: 지문은 기존 공식(이집트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고 했으므로, 과거의 관행을 되살렸다는 것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음.
- ② 세부 사항들을 기존 지식의 연장으로 보았다: 지문은 그리스인들이 기성 지식(공식)을 따르는 대신 스스로 보기로 결심했다고 명시했으므로, 기존 지식의 연장이라는 것은 논지와 정반대.
- ③ 규칙의 경계 안에서 신체적 특징들을 다듬었다: 지문은 “아무리 좋은 공식이라도 그저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규칙의 경계 안에 머물렀다는 것은 논지와 정반대.
- ④ 규칙을 넘어서 피상적인 인상으로 신체를 묘사했다: 지문은 무릎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려는 진지한 탐구를 다루므로, ‘피상적인 인상’은 지문이 그리는 감각적 관찰의 진지함과 어긋남.

**어휘**

statue 조각상	leave off 중단하다
imitate 모방하다	figure 형상
division 구분, 분할	hold together 결합하다
content 만족하는	formula 공식
experiment 실험하다; 실험	convincing 설득력 있는
prescription 규범, 처방	ready-made 기성의
represent 표현하다	chisel 끌, 조각칼
verdict 판단, 판결	revolution 혁명
revive 되살리다	neglected 방치되었던
extension 연장	established 기존의, 확립된
feature 특징	boundary 경계
depict 묘사하다	superficial 피상적인
impression 인상	encounter 마주침; 마주치다
inherited 계승된	scheme 도식, 체계

22

**정답** ①

**해석**

우리는 일부 산업이 발전한다는 사실에는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 반면, 다른 산업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는 거의 완전히 무관심하다. 그러나 혁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산업에서 혁신의 결실을 기꺼이 인정할 때조차, 특정 산업에서의 혁신에 대한 투자의 부재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 발전의 부재는 간과하기 쉽다. 만들어지지 않은 발명품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처럼, 거의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다. 새로운 발전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오래된 것들이 놀라울 만큼 오랫동안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콤파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자동 결속기는 사십 년 동안 농기계 산업의 기계적 경이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훨씬 더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산업에서든 혁신에 대한 투자의 부재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사실 수많은 산업이 그러한 혁신에 대한 투자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으며, 그들을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도 거의 없거나 전혀 없지만, 누구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해설

[논증 구조]

발전한 산업: 중요시 / 정체된 산업: 무관심 → 혁신 성과는 인정하나 투자 부재는 무관심의 대상 [주장] → 부재를 아쉬워하지는 않음, 오래된 기술이 인상적으로 남음 [예시] →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부재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나 실제로는 무관심 [결론]

[정답 논리]

혁신이 일어난 산업의 성과는 인정받지만, 혁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는 주목받지 못한다. 일어나지 않은 발전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므로 오래된 기술이 오랫동안 인상적으로 남을 수 있고(자동 결속기 사례), 진정 생산량 증가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이 부재를 용납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 즉 혁신의 성과는 주목을 받는 반면, 혁신 투자의 부재는 관심 밖에 놓인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오답 논리]

- ② 산업 간 발전 격차는 혁신 투자의 규모 차이에서 비롯된다 → 지문은 혁신 투자 유무에 대한 ‘관심의 비대칭’을 다룰 뿐, 격차의 발생 원인 자체를 설명하지 않으므로 지문 미언급.
- ③ 혁신의 결실은 그것이 발생한 산업 안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 혁신의 산업 간 과급력이나 한정성은 지문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
- ④ 새로운 발전이 부재해도 기존 기술의 산업적 가치는 유지된다 → 자동 결속기 사례에서 도출될 수 있어 보이나, 이는 ‘무관심으로 인해 정체가 간과된다’라는 논지를 뒷받침하는 예시일 뿐이며, 기존 기술의 가치 유지 자체가 필자의 논지는 아님.
- ⑤ 생산량 증가를 위해 혁신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지문에 등장하나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 진정으로 진지하다면”이라는 반사실적 가정 속의 내용이다. 글의 핵심은 실제로는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므로, 지문의 결론부와 어긋남.

어휘

attach 부여하다, 첨부하다	profound 엄청난, 깊은
indifferent 무관심한	acknowledge 인정하다
innovation 혁신	absence 부재
investment 투자	attract 받다, 끌다
attention 주목, 주의	overlook 간과하다
impressive 인상적인	remarkably 놀라울 만큼
combine 콤바인; 결합하다	self-binder 자동 결속기
mechanical 기계적	marvel 경이; 경탄하다
farm machinery 농기계	output 생산량
investigate 조사하다	regard 여기다
intolerable 용납할 수 없는	on one's behalf ~를 대신해서

23

정답 ①

해석

복잡한 기술이 배경 속으로 사라져서 거의 노력이나 생각 없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은, 그 기술을 파는 사람들만큼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저 스위치 하나를 눌러서 기술을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순응이라는 느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라진다. 기술에 우리 자신이 더 익숙해질수록, 그 기술은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행사하게 되지, 더 적은 힘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Bruno Latour는 친숙한 기술의 비가시성이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재형성해 온 방식을 가린다. 우리가 우리만의 특정한 의도에 이바지하도록 의도적으로 숙달했던 그 도구가, 바로 그 숙달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에 맞게 그 도구를 재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목적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의지의 미끄러짐을 통해, 우리는 처음에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바라기 시작했다.

해설

[논증 구조]

기술의 비가시성: 매력적인 전망이나 단순하지 않음 → 익숙해질수록 기술이 더 많은 힘을 행사함 [주장] → 비가시성은 착시 현상(우리가 기술에 맞춰 자신을 재형성한 것을 가림) → 우리가 숙달한 도구가 도리어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를 강요 → 의지의 미끄러짐: 처음 원했던 것과 다른 것을 바라게 됨 [결론]

[정답 논리]

기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느린 순응을 거친 결과이며, 우리가 기술에 익숙해질수록 기술은 더 적은 힘이 아니라 더 많은 힘을 우리에게 행사하게 된다. Latour가 지적하듯 이 비가시성은 착시일 뿐, 실제로는 우리가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형성해 온 과정을 은폐한다. 우리의 의도에 이바지하도록 숙달했던 도구가 그 숙달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술에 대한 통제권이 사용자에게서 기술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용자로부터 친숙한 기술로 통제력의 역전’이다.

[오답 논리]

- ② 의지의 주인에서 의지의 하인으로 기술의 전환 → 지문은 도구가 처음엔 우리 의지의 하인이었다가 숙달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의도를 강요하는 주인이 된다고 했으므로, 선지는 그 변화의 방향을 정반대로 뒤집음.
- ③ 인간이 통제한다는 증거로서 친숙한 도구의 비가시성 → 지문에서 비가시성은 인간이 통제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가리는 착시인데, 선지는 이를 인간 통제의 증거라고 했으므로 논지와 정반대.
- ④ 복잡한 도구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켜 가는 점진적 과정 → 순응 과정은 지문에 언급되나 이는 통제력 역전을 낳는 전제일 뿐, 글의 핵심인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가’라는 결론을 담지 못함.
- ⑤ 더 큰 인간의 자율성으로 향하는 기술의 숙달 → 지문은 숙달의 결과가 자율성 확대가 아닌 도구에 대한 종속이라고 했으므로 논지와 정반대.

어휘

complicated 복잡한	fade 사라지다
employ 사용하다, 고용하다	appealing 매력적인
flip 튀기다, 누르다	habituate 익숙하게 하다, 습관들이다
exert 행사하다, 발휘하다	invisibility 비가시성
optical illusion 착시 현상	obscure 가리다; 모호한
refashion 재형성하다	accommodate 수용하다, 숙박시키다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master 숙달하다
serve 이바지하다, 섬기다	intention 의도, 목적
impose 강요하다	will 의지
alter 바꾸다	end 목적
slipping 미끄러짐	reversal 역전
shift 전환; 바꾸다	proof 증거
gradual 점진적인	adapt 적응시키다
autonomy 자율성	

24

정답 ④

해석

식품 정치는 흔히 더 나은 소비자 선택이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는 그 논리에 부합하는 문제들만 주목을 받는 반면, 빈곤이나 식량 접근성과 같은 우려들은 단순한 소비자 기반의 해결책에 저항하기 때문에 주변화되거나 아예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더 깊은 모순은 소비 행위 그 자체의 핵심에 있다. 교육받고 계몽된 소비자 선택이라는 형태로, 시장은 다름 아닌 시장 그 자체가 만들어낸 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구조적 개혁을 장려하기보다, 이러한 프레임은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고 더 폭넓은 해결책들을 논외로 남긴다. 본질적으로 더 나은 소비자 선택은, 윤리적인 동기에서 나올 때조차,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낸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그 동일한 체제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쪽으로 개인들의 방향을 돌릴 뿐이다.

해설

[논증 구조]

식품 정치: 소비자 선택이 취향·환경 문제 동시 해결 가능하다는 전제 → 빈곤·접근성 문제는 주변화·소거 → 더 깊은 모순: 시장이 자신이 만든 실패의 해결책으로 제시됨 [주장] → 구조적 개혁 대신 근본 원인 방지 → 윤리적 소비조차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 동일 체제 내 선택으로 개인을 유도할 뿐 [결론]

[정답 논리]

식품 정치는 소비자 선택만으로 취향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이 논리에 맞지 않는 빈곤·접근성 문제는 배제한다. 더 큰

본적인 모순은, 시장 그 자체가 만들어낸 실패를 다시 시장(소비자 선택)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이 프레임은 구조적 개혁이나 근본 원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으며, 윤리적 동기에서 나온 선택조차 문제를 만든 체제에 도전하지 못하고 동일 체제 안에서의 ‘올바른’ 선택으로 개인을 돌릴 뿐이다. 즉 문제(병)를 일으킨 시장(원인)이 해결책(치료법)으로 다시 제시되어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선택의 환상: 치료법이 병을 반복할 때’이다.

[오답 논리]

① 시장 실패에 대한 진짜 해결책으로서의 좋은 의도 → 지문은 윤리적 동기의 소비자 선택조차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므로 논지와 맞지 않음.

② 입맛과 지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 지문이 비판하는 전제(소비자 선택이 취향과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를 그대로 반복한 선지일 뿐, 필자의 논지가 아님.

③ 소비자 행동: 구조적 개혁에서 빠진 연결고리 → 지문은 소비자 선택이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근본 원인을 방치한다고 했으므로, 소비자 행동이 ‘연결고리’라는 것은 논지와 정반대.

⑤ 식품 정치의 사각지대: 빈곤과 접근성의 문제 → 빈곤·접근성 문제는 지문 전반부의 문제 제기에서 등장하나, 지문의 핵심 논지는 그보다 더 깊은 모순인 ‘시장이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구조’이므로 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어휘]

satisfy 만족시키다	taste 취향
premise 전제	fit 부합하다, 알맞다
concern 우려, 관심사	poverty 빈곤
access 접근성, 접근	resist 저항하다
contradiction 모순	enlightened 계몽된
encourage 장려하다	structural 구조적, 구조적인
reform 개혁	framing 프레임, 구성
underlying 근본적인	unaddressed 해결되지 않은
off the table 논외로	ethically 윤리적으로
motivated 동기에서 나오는	redirect 방향을 돌리다
intention 의도	fix 해결책; 고치다, 고정하다
illusion 환상	cure 치료법; 치료하다
blind spot 사각지대, 맹점	

25

[정답] ③

[해석]

위 그래프는 2025년 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다섯 개 국가에서 네 가지 활동(TV 시청, 온라인 콘텐츠, 야외 활동, 사고 활동)에 소비된 여가 시간의 비율을 보여준다. ① 한국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비율은 가장 순위가 낮은 활동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더 컸다. ② TV 시청 비율이 가장 작은 국가는 야외 활동 비율이 가장 큰 국가이기도 했다. ③ 브라질에서 야외 활동이 전체 여가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비율이었다. ④ 일본은 TV 시청이 여가 시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일한 국가로 두드러졌다. ⑤ 다른 네 국가와 달리, 스웨덴은 사고 활동이 TV 시청보다 더 큰 비중을 보였다.

[해설]

브라질의 야외 활동 비중은 38%로 전체 여가 시간의 3분의 1(약 33.3%) 이상을 차지하지만, 스웨덴의 야외 활동 비중 또한 41%로 3분의 1 이상이다. 따라서 브라질의 비율이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③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휘]

outdoor 야외의	socializing 사고 활동
share 비율, 비중	account for 차지하다, 설명하다
proportion 비율, 부분	stand out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take up 차지하다	

26

[정답] ③

[해석]

Rachel Carson은 평범한 관찰을 대중적 관심사로 바꾼 것으로 가장 잘 알

려져 있었다. 그녀는 1907년 펜실베이니아주 스프링데일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 관한 관심을 키웠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동물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Carson은 미국 어업국에서 근무했다.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나 판매는 부진했던 그녀의 첫 번째 책과 달리, 『우리를 둘러싼 바다』는 1951년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녀가 전업 작가가 될 수 있게 해주었다. Carson의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인 『침묵의 봄』은 1962년에 출간되었으며 특히 DDT에 대해 경고했다. 화학 회사들로부터의 거센 공격과 나빠지는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Carson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고수했다. 그녀의 글은 과학적 정확성과 우아한 언어를 결합하여 많은 독자를 자연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1964년 메릴랜드에서 사망했지만, 그녀의 저서들은 현대 환경 운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해설]

『우리를 둘러싼 바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녀가 전업 작가가 될 수 있게 해주었다(allowed her to become a full-time writer)고 했으므로, 전업 작가가 된 후 그 책이 성공했다는 ③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휘]

master's degree 석사 학위	zoology 동물학
bureau 국, 단체	fishery 어업
praise 찬사를 보내다; 칭찬	critic 비평가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publish 출간하다, 발행하다
fierce 거센, 격렬한	attack 공격
chemical 화학의, 화학적인	stand by 고수하다, 지키다
claim 주장; 주장하다	combine 결합하다
accuracy 정확성	graceful 우아한

27

[정답] ⑤

[해석]

**Greenfield 농산물 직거래 장터 자원봉사자 모집**

제8회 연례 Greenfield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도와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날짜 및 시간:** 6월 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장소:** 그린필드 센트럴 파크 (북쪽 야외 쉼터)

**대상:** 19세 이상 성인

**신청 요건**

- 5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 (현장 등록 불가)
- 합격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6월 1일, 오전 9시-10시 30분

**혜택**

- 15달러 상당의 장터 상품권 (행사 당일에만 유효)
- 행사 당일 무료 주차권
- 일반 개장 전 판매 부스 우선 입장

※ 더 많은 정보는 [www.greenfieldmarket.org](http://www.greenfieldmarket.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일반 개장 전(before public opening)에 판매 부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일반 개장 이후에 우선 입장할 수 있다는 ⑤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휘]

recruitment 모집	run 운영하다
annual 연례의, 매년의	shelter 쉼터, 대피소
requirement 요건, 필요조건	register 등록하다
on-site 현장의, 현장에서	accepted 합격한, 수락된
applicant 지원자	benefit 혜택; 이익을 얻다
voucher 상품권, 쿠폰	worth ~ 상당의, ~의 가치가 있는
valid 유효한	priority 우선, 우선권
vendor 판매자, 노점상	

28

정답 ④

해석

**Lakeside 아쿠아틱 센터 수상 안전 교육**

수상 안전 기술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Lakeside 아쿠아틱 센터에서 이번 여름 5일간의 수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날짜 및 시간:** 7월 14일 - 18일 (월 - 금), 오후 6시 - 오후 8시

**장소:** Lakeside 아쿠아틱 센터, B 수영장

**대상:** 20세 이상 성인

**참가비**

- 일반: 1인당 90달러
- 단체 (3인 이상): 1인당 80달러
- 회원: 1인당 70달러 (회원 증명 필요)

**프로그램 내용**

- 구조 기술, 심폐소생술(CPR), 그리고 기본 응급처치
- 모든 장비 제공 — 직접 가져올 필요 없음
- 회차별 진행을 위해 최소 8명의 참가자 필요

**등록 및 환불**

- 7월 10일까지 [www.lakesideaqua.org](http://www.lakesideaqua.org)에서 등록
- 7월 12일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7월 12일 이후 환불 불가

※ 두 회차 이상 결석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설

7월 12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no refunds after July 12)고 했으므로, 7월 12일이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④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어휘

aquatic 물의	proof 증명
require 필요하다, 요구하다	rescue 구조; 구조하다
CPR 심폐소생술	first aid 응급처치
equipment 장비	minimum 최소; 최소의
participant 참가자	run 진행하다, 운영하다
session 회차, 시간	registration 등록
refund 환불; 환불하다	cancel 취소하다
missing 결석한, 빠진	certificate 수료증, 증명서

29

정답 ②

해석

희생양 만들기는 단지 먼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혼란에 직면할 때, 공동체들은 위기 이면의 구조적 힘을 조사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죄가 있는 당사자를 찾는다. 이러한 충동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희생양의 제거가 평온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추방과 화해의 반복되는 순환에 익숙한 공동체가 인지된 위협에 맞서 본능적으로 불러내는 논리는, 그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마녀를 불태우고 가뭄이 멈추는 것을 지켜본 마을은 이 논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합리성의 느낌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혼란이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개방적인 탐구를 막는다. 원인을 찾았다고 확신하는 공동체는 더 깊이 살펴볼 이유가 없다. 희생양이 더 그럴듯하게 위기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것은 진정한 탐구를 더욱 침묵하게 한다. 이러한 희생적 역학은 결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 희생양 메커니즘이 한 문화에서 지배적인 힘으로 떠오를 때, 가장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설

[어법 부적절]

②: 문장의 주어는 The logic이고, that communities ~ invoke against perceived threats는 The logic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feel 자리에는 주어 The logic에 호응하는 본동사가 와야 하므로, 단수 동사

feels가 와야 한다.

[어법 적절]

①: ‘전치사 + 관계대명사’ 형태인 for whom 뒤에 ‘주어 + 동사 + 보어’ 형태로 완전한 문장이 왔으므로 어법상 적절하다. 수능 영어 어법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것은, (a)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완전한 문장’, (b) ‘선행사 + 관계대명사 + 불완전한 문장’, (c) ‘what + 불완전한 문장’, (d) ‘관계부사 + 완전한 문장’이다. 한 가지 예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뒤에는 어법상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소유격이 없어서 발생하는 의미상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③: 지각동사 watched의 목적격 보어 자리로, 목적어인 the drought가 스스로 멈추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원형부정사 cease가 온 것은 적절하다. 자연현상은 보통 능동형이다.

④: convince 동사는 보통, ‘convince + 목적어’ 형태, 혹은 ‘convince + 사람 + that 절’ 형태로 쓰인다. ④가 포함된 문장에서 A community가 주어, has가 본동사고, convinced ~ the cause는 과거분사가 주어 수식하는 형태인데, ‘convince + 사람 + that 절’ 형태에서 사람이 없는 형태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분사가 온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leaves의 목적어는 genuine inquiry이고, the more silent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이므로, 보어 자리에 부사가 아닌 형용사 silent가 온 것은 적절하다. 부사는 보어 자리에 절대로 올 수 없음을 명심하자.

어휘

relic 유물	ancient 먼 과거의, 고대의
disorder 혼란; 질환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guilty 죄가 있는	structural 구조적, 구조적인
impulse 충동	elimination 제거
calm 평온; 차분한	cycle 순환, 주기
reconciliation 화해	invoke 불러내다, 들먹이다
threat 위협	witch 마녀
drought 가뭄	cease 멈추다, 그치다
rationality 합리성	prevent 막다, 방해하다
inquiry 탐구, 조사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provoke 불러일으키다	convince 확신하다
plausibly 그럴듯하게	silent 침묵하게 하는
genuine 진정한, 진짜의	sacrificial 희생적, 희생의
emerge 떠오르다, 나타나다	dominant 지배적인
reason 이성; 이유	

30

정답 ④

해석

만약 지위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의존한다면, 왜 그것을 그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공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므로, 큰 예우를 받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스스로를 약화시킨다. 우리는 중요성에 대한 명시적 주장을 본능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진정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더 절박하게 선언할수록, 바로 그 노력 자체가 그 가치의 부재를 보여주는 증거로 더 많이 읽힌다. 경제학자 Jon Elster는 이를 정확하게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된 행동만큼 인상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포착했다. 우리는 화자가 과장할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 정보를 깎아내는데, 지위에 관한 주장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지위가 불필요하게 만드는 인정에 대한 필요를 경시한다(→드러낸다). 이는 초연함의 원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높은 지위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은 지위에 대해 전적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지위 주장은 결코 지위 주장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해설

지문은 명시적 지위 주장이 본능적으로 불신받으며, 가치를 절박하게 선언할수록 그 노력 자체가 가치의 부재를 보여주는 증거로 읽히고, 화자에게 과장할 동기가 있을 때 그 발화는 청자에 의해 깎여서 받아들여진다고 말한다. 즉 자랑하는 행위는 화자가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청자에게 알아차리게 만드는 행위로 그려진다. 그런데 ④에 downplay(경시하다)가 들어간다면 자랑하는 행위가 그 필요를 “감추거나 축소시킨다”라는 의미가 되어, 절박한 주장일수록 오히려 더 잘 읽히고 깎여서 받아들여진다고 한

의 흐름과 어긋난다. 또한 ④ 바로 뒤에서 지위에 무관심해 보이는 주장이 가장 신뢰받는다라는 “초연함의 원칙”이 제시되는데, 이는 자랑하는 행위가 인정의 필요를 숨기지 못하고 노출시킨다는 전제 위에서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따라서 ④의 downplay는 reveal(드러내다) 등의 어휘로 바뀌어야 한다.

어휘

status 지위	recognition 인정
announce 공표하다	courtesy 예우
self-undermining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distrust 신뢰하지 않다
explicit 명시적인	possess 가지다
assert 주장하다	desperately 절박하게
declare 선언하다	evidence 증거
absence 부재	capture 포착하다
impress 인상을 주다	discount 깎아내리다
motivation 동기	exaggerate 과장하다
exception 예외	boast of ~을 자랑하다
standing 지위	downplay 경시하다
render 만들다	principle 원칙
detachment 초연함, 분리	credible 신뢰할 수 있는
indifferent 무관심한	

31

정답 ②

해석

의례는 틀을 만듦으로써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것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관련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의례는 인식을 돕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례는 선택 원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인식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의례는 어차피 경험했을 것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캔과 상자를 여는 것에 대한 언어적 지시를 보여주는 시각 보조 자료와 같은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알려진 것에 대한 일종의 극적인 지도나 도표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항상 경험을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례는 이러한 부차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험을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것에 대한 지식을 허용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경험을 외부화하여 그것을 백일하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파악되는 방식을 매개한다. 이는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 결코 말로 내뱉어지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말이 짜맞춰지고 나면, 그 생각은 바로 선택된 그 말에 의해 변하고 제한된다. 따라서 말은 무언가를, 즉 같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다.

해설

[논증 구조]

의례: 인식을 변화시킴 → 부차적 역할(시각 보조 자료, 지도·도표)이 아님 → 의례는 경험을 구성함(빈칸) [주장] → 언어 유추: 말이 곧 생각을 만들어냄 [예시]

[정답 논리]

의례는 이미 일어난 경험을 생생하게 보여주거나 알려진 것을 뒤따르는 부차적 도구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지식을 가능하게 하고 경험이 파악되는 방식 자체를 매개한다. 이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 일단 말로 짜맞춰지면 그 말에 의해 변하고 제한되어, 말이 곧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언어의 사례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의례는 기존 경험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② ‘구성하다(constitute)’가 적절하다.

[오답 논리]

- ① 예상하다: 지문은 의례가 경험에 앞서 그것을 예상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의례 자체가 경험을 만들어내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다루므로, 경험에 선행하여 그것을 미리 내다본다는 anticipate는 지문과 무관하다.
- ③ 반영하다: 지문은 의례가 “알려진 것에 대한 일종의 극적인 지도나 도표”라면 그것은 “항상 경험을 뒤따를 것”이라고 한 뒤, 실제로는 그러한 부차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즉 의례가 경험을 뒤따르며 그대로 비춘다는 reflect는 지문이 직접 부정하는 선후 관계이므로 논지와 정반대이다.
- ④ 입증하다: 지문은 의례가 그렇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지식을 새롭게

가능하게 한다고 했을 뿐, 이미 알려진 사실의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해 준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으므로 validate는 지문과 무관하다.

⑤ 전달하다: 지문은 의례가 “경험을 외부화하여 그것을 백일하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경험이 파악되는 방식 자체를 매개한다고 했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경험을 변형 없이 그대로 옮긴다는 transmit은 지문이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어휘

ritual 의례	framing 틀 만들기
relevant 관련된	perception 인식, 인지
principle 원리	visual 시각적인
aid 보조 자료; 돕다	illustrate 보여주다
verbal 언어적인	instruction 지시
secondary 부차적인	permit 허용하다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externalize 외부화하다
mediate 매개하다	grasp 파악하다
anticipate 기대하다, 예상하다	constitute 구성하다
reflect 반영하다	validate 입증하다
transmit 전송하다	

32

정답 ④

해석

우리는 패션 세계를 선구적인 디자이너들이 정점에 서서, 개인적인 영감을 결국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을 향해 아래쪽으로 보내는 위계 구조로 그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증거는 계속해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디자이너들도 시즌마다 거의 동일한 실루엣, 색조, 그리고 비율에 도달한다. 그러한 체계적 수렴은 우연일 수 없다. 만약 패션이 진정으로 개인의 창작 주체성에 좌우된다면, 이 정도의 확실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디자이너들이 유행하는 패션으로부터 급격하게 벗어날 때, 그들의 작품은 거의 예외 없이 처음에는 거부당하며, 대중이 준비되었을 때만 비로소 수용된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우리가 보통 추측하는 것보다 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심지어 가장 칭송받는 인물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은 문화적 대본을 읽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형성해 놓은 욕망에 즐거움을 주는 형태를 부여할 뿐이다.

해설

[논증 구조]

디자이너는 자신의 영감을 대중에게 하향 전달 [통념] → 고립된 디자이너들의 동일한 결과물, 급진적 시도의 초기 거부 [반박] → 디자이너는 덜 주도적인 위치 →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은 문화적 대본을 읽고 있을 뿐(빈칸)[결론] → 이미 형성된 대중의 욕망에 형태만 부여

[정답 논리]

지문은 디자이너가 영감의 근원이자 주도자라는 통념을 반박하며, 고립된 디자이너들이 동일한 결과물에 도달하는 체계적 수렴과, 급진적 시도가 대중이 준비되기 전에는 거부당한다는 증거를 통해 디자이너가 패션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아님을 보여준다. 빈칸 뒤 문장은 그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욕망에 형태를 부여할 뿐”이라고 직접 풀이하는데, 이는 디자이너 자신이 만들지 않은, 이미 정해져 있는 흐름을 그저 파악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그들이 작성하지 않은 문화적 대본을 읽고 있다’가 적절하다.

[오답 논리]

- ① 사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영향력이 느껴지게 하고 있다: 지문은 디자이너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통념을 반박하므로, 영향력 행사를 다시 주장하는 이 선지는 지문의 핵심 논지와 충돌한다.
- ② 숨겨진 개성을 담아 패션을 창조하고 있다: 지문은 고립된 디자이너들조차 동일한 결과물에 도달하는 체계적 수렴을 근거로 개인적 창작 주체성을 부정하므로, 개성의 발현을 말하는 이 선지는 성립할 수 없다.
- ③ 소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트렌드를 감지하고 있다: 지문은 디자이너가 이미 형성된 욕망에 뒤따라 형태를 부여할 뿐이라고 했으므로, 디자이너가 소비자보다 앞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포착해 낸다는 이 선지는 글이 제시하는 디자이너와 대중 사이의 선후 관계와 어긋난다.
- ⑤ 받아들여도록 대중을 이끄는 취향을 조율하고 있다: 지문은 디자이너의 급진적 시도가 대중이 준비되기 전에는 거부당한다고 했으므로, 디자이너가 대중을 이끈다는 이 선지는 글이 제시하는 수용의 순서와 어긋난다.

어휘

picture 그리다	hierarchy 위계 구조
visionary 선구적인	summit 정점
channel 보내다	inspiration 영감
evidence 증거	isolation 고립된 상태
virtually 거의	identical 동일한
palette 색조	proportion 비율
convergence 수렴	accidental 우연한
answer to ~에 좌우되다	authorship 창작 주체성
uniformity 획일성	break 벗어나다, 위반하다
prevailing 유행하는	invariably 거의 예외 없이
reject 거부하다	acceptance 수용
occupy 차지하다	commanding 주도적인
acclaimed 칭송받는	figure 인물
demonstrate 보여주다	script 대본
influence 영향	individuality 개성
detect 감지하다	discern 식별하다
orchestrate 조직하다	taste 취향
adopt 채택하다	

33

정답 ①

해석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 복제품이 있다. 이를 본 사람은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원작을 보고 그곳에서 복제품에 걸여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는 복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원작을 볼 때 그것이 어딘가에서 이미 복제품을 본 적 있는 유명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그저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원작의 고유성은 이제 그것이 복제품의 원본이라는 사실에 있다. 고유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원작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즉, 원작의 본질은 그것이 묘사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원작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있다. 원작이 지니게 된 이 새로운 지위는 새로운 복제 수단이 가져온 지극히 합리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비화의 과정이 개입한다. 원작의 의미는 더 이상 그것이 고유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그것의 고유한 존재는 대체 불가능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그 가치가 좌우되는 대상으로 평가되고 정의된다.

해설

[논증 구조]

복제품 등장 → 원작의 고유성: 더 이상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음 → 원작의 본질은 묘사 내용을 넘어서, 원작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있음(빈칸) [주장] → 원작의 새로운 지위는 복제 수단이 가져온 합리적 결과 → 신비화 과정 개입 → 원작의 고유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지금, 여기에 있음에 가치가 좌우됨 [결론]

[정답 논리]

지문은 원작의 고유성이 이제 “복제품의 원본이라는 사실(being the original of a reproduction)”에 있다고 했고, 곧이어 고유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원작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빈칸 문장은 이를 이어받아 원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묘사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beyond what it intends to describe)” 설명한다. 즉 원작의 본질은 이미지의 내용(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마지막 문장에서 원작의 고유한 존재가 “대체 불가능한 지금, 여기에 있는 것(the irreplaceable here and now)”에 가치가 좌우되는 대상으로 정의된다는 내용과 직접 대응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묘사된 이미지 내용이 아니라 원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키는 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가 적절하다.

[오답 논리]

- ② 개인의 이전 노출에 의해 매개된다: 지문은 원작의 본질이 묘사하려는 것을 넘어서는 곳에 있다고 했을 뿐, 본질의 소재를 관람자 개인의 경험(복제품을 먼저 본 것)에서 찾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 ③ 원작의 복제품이 지닌 희소성에 의해 지배된다: 지문은 원작의 가치가 “대체 불가능한 지금, 여기에 있는 것(the irreplaceable here and now)”에 좌우된다고 했으므로, 본질의 소재를 원작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복제품의 수량적 특성(희소성)에서 찾는 것은 지문이 제시하는 방향과 다르다.
- ④ 원작이 담은 내용의 미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지문은 고유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더 이상 원작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It is no

longer what its image shows)”라고 명시하므로, 본질이 이미지의 내용(미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지문이 직접 부정하는 내용이다.

⑤ 충실한 복제에 원작이 저항하는 것에 있다: 지문은 원작의 고유성이 “복제품의 원본이라는 사실(being the original of a reproduction)”에 있다고 했으므로, 원작이 복제 가능성을 거부하거나 저항한다는 것은 오히려 원작과 복제품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지문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

어휘

reproduction 복제품	original 원작, 원본
lack 결여되다	quality 품질
remind 떠올리게 하다, 상기시키다	uniqueness 고유성, 독특함
strike 인상을 주다, 충격을 주다	essential 본질적인
reside 존재하다, 거주하다	reality 사실, 현실
being 존재	intend 의도하다
describe 묘사하다	status 지위, 상태
consequence 결과	means 수단; 재산
process 과정	evaluate 평가하다
irreplaceable 대체 불가능한	mediate 매개하다, 중재하다
prior 이전의	exposure 노출, 경험
govern 지배하다, 통치하다	rarity 희소성
resistance 저항	faithful 충실한
stem from ~에서 비롯되다	aesthetics 미적 특성, 미학
contents 내용, 목차	

34

정답 ③

해석

‘~에 대해 웃는 것’과 ‘~와 함께 웃는 것’ 사이의 구별은 우리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는 광기와 히스테리의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웃음의 발생이 이 두 범주로 나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완전히 근대적인 것으로, 18세기 이전에는 웃음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불가능했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웃음은 웃는 사람을 그 즐거움의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이미 존재하던 거리에 의해 가능했다. 한 희극 역사가가 말했듯이, 전통적으로 희극적 인물들은 대상화되었고, 우리로부터 그들을 명백히 타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희극적 인물은 그 행동이 평범한 사람의 행동과 더 유사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의 지나침은 더 이상 그렇게 일탈적이지 않았고, 그 자신도 덜 추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대상과 주체 사이의 이러한 거리 변화는 타인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에 대해’보다는 ‘~와 함께’ 웃는다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

해설

[논증 구조]

전통: 희극적 인물 = 대상화된 타인, 웃는 자와 거리 존재 → 근대: 희극적 인물이 평범한 사람과 유사해짐, 덜 일탈적, 덜 추상적 → 대상-주체 간 거리 변화는 타인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결과로 이어짐(빈칸) [결론] → ‘~와 함께’ 웃는다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

[정답 논리]

전통적으로 희극적 인물은 대상화되어 웃는 사람과 명백히 분리된 타인으로 여겨졌으나, 근대에 들어 희극적 인물의 행동이 평범한 사람의 행동과 더 유사해지고 그 지나침이 덜 일탈적이며 그 자신도 덜 추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즉 대상(희극적 인물)과 주체(웃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진 것이다. 빈칸은 바로 이 거리 변화의 결과이며, 빈칸 뒤 문장은 그 결과로 ‘~에 대해’보다는 ‘~와 함께’ 웃는다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 좁힘과 ‘~와 함께 웃음’이라는 결과를 매개하는 것이어야 하며, 선택지 중 이를 충족하는 것은 ③ ‘타인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이다.

[오답 논리]

- ① 즐거움과 연민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켰다: 지문은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 변화만을 다룰 뿐, 즐거움(amusement)과 연민(pity)이라는 두 감정 사이의 경계는 지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 ② 희극적 차이에 대한 더 예리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지문은 희극적 인물의 행동이 평범한 사람과 “더 유사해졌다(more like that of the average man)”고 했으므로, 차이가 더 예리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지문이 서술하는 변화의 방향과 반대된다.

④ 유사성 속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냈다: 지문은 희극적 인물이 평범한 사람과 유사해졌다는 변화만을 서술할 뿐, 그 유사성 안에서 다시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⑤ 자아와 타인 사이의 더 명확한 구분을 만들어냈다: 지문은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가 변화했다고 했고, 이는 빈칸 뒤에서 “‘~에 대해’보다는 ‘~와 함께’ 웃는다”는 개념으로 이어지므로, 자아와 타인의 구분이 더 명확해진다는 것은 이 결과와 직접 모순된다.

어휘

distinction 구별	universally 보편적으로
recognize 인정하다	occurrence 발생
laughter 웃음	except 제외하고
abnormal 비정상적인	hysteria 히스테리
category 범주	prior to ~이전에
conceive 여기다	distance 거리를 두다; 거리
object 대상	amusement 즐거움
previously 이미, 이전에	comedy 희극
figure 인물	objectify 대상화하다, 객관화하다
remove 분리하다	distinctively 명백히
excess 지나침	abstraction 추상적인 존재
subject 주체	result in ~로 이어지다, 결과를 낳다
recognition 인식	consequently 그 결과
notion 개념	weaken 약화시키다
boundary 경계	pity 연민
awareness 인식	similarity 유사성
division 분리	

35

정답 ④

해석

여론조사라는 기법은 의견이 사람들 내부에 고정된 실체이며, 여론조사원의 질문에 의해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되고 추출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의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의 습득, 그리고 질문, 토론, 논쟁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사고의 과정이다. 질문은 단지 의견을 ‘유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견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들은 의견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형성하는 지속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의견을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할 때, 사람들이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이 왜곡되는데, 비록 그 과정이 민주주의적 삶의 핵심일지라도 그러하다. (여론조사원들은 자신들이 기록하는 의견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비교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질문을 설계하는 데 종종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민주적 대중은 단지 답변을 통해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고, 응답하고, 수정하고, 논쟁하는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해설

이 글의 전반부는 의견을 사람들 내부에 고정된 실체로 보는 여론조사의 가정과 달리, 의견이 질문·토론·논쟁을 통해 형성되는 사고의 과정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기준으로 글의 흐름은 의견이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형성·재구성되는 과정이라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된다. ④를 제외한 ①②③⑤는 모두 이 흐름 위에 있지만, ④는 여론조사원들이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중립적인 질문을 설계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의견을 측정·비교 가능한 고정된 대상으로 다루는 여론조사 본연의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글의 논지와 무관하다. ④를 제거하면 ③의 “의견을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할 때 형성 과정이 왜곡된다”는 내용이 ⑤의 “민주적 대중은 답변의 집계가 아니라 함께 질문하고 논쟁하는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어휘

poll 여론조사를 하다; 투표	rest on ~에 기초하다
assumption 가정	entity 실체
precisely 정확하게	locate 위치를 파악하다, 위치시키다
extract 추출하다; 발췌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momentary 일시적인	acquisition 습득
invite 유도하다, 초대하다	reconstruct 재구성하다
engage in ~에 참여하다	ongoing 지속적인
measurable 측정 가능한	object 대상, 물체
distort 왜곡하다	democratic 민주주의적인, 민주적인
devote 바치다, 쏟다	neutral 중립적인

record 기록하다; 기록  
revise 수정하다

compare 비교하다  
argue 논쟁하다, 주장하다

36

정답 ③

해석

일부 철학자들은 자기기만이 용어상 모순이며,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다. 자아가 어떻게 자아를 속일 수 있는가? 그것은 자아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B) 자아가 정신 전체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만약 자아가 더 큰 정신 체계의 의식적 표면에 불과하다면 자기기만은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의식으로부터 숨겨진 것이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C) 핵심은 진실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의식에서 배제되어 다양한 정도의 무의식 속에 보관된다는 점이다. 설명이 필요한 반직관적인 사실은 거짓된 정보가 의식적인 정신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 열려 있는 정신의 영역을 정확히 차지한다는 것이다. (A) 한 가지 가설은 그 배치가 타인을 조종하는 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들로부터 현실을 더 잘 숨기기 위해 그것을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으로부터 흐리게 만든다.

해설

정답 논리

자아가 어떻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로 끝나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자아가 정신 전체가 아니라 더 큰 정신 체계의 의식적 표면일 뿐이라면 자기기만이 가능해진다는 (B)가 와야 한다. (B)는 의식으로부터 숨겨진 것이 다른 곳(무의식)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를 이어받아 그 숨겨짐의 핵심 기제, 즉 진실한 정보가 무의식에 보관되고 그 대신 거짓 정보가 의식을 차지한다는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는 (C)가 그 뒤를 잇는다. (C)는 거짓 정보가 의식을 차지한다는 반직관적 사실이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설명, 즉 이러한 배치가 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는 (A)가 마지막에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B) - (C) - (A)’이다.

오답 논리

- ①: (A)의 “the arrangement”는 의식에는 거짓 정보가, 무의식에는 진실한 정보가 보관되는 특정한 배치를 가리키는데, 주어진 글은 자기기만의 모순 가능성을 제기할 뿐 그러한 배치 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the arrangement가 가리킬 대상이 없어 (A)가 주어진 글 바로 다음에 오는 ①은 탈락한다.
- ②: (B)의 마지막은 의식으로부터 숨겨진 것이 무의식 어딘가에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그 직후에 (A)의 “the arrangement”가 오면 무엇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진실은 배제되고 거짓이 의식을 차지한다는 것)가 아직 설명되지 않은 채 그 배치의 목적부터 제시되는 비약이 발생한다. 이 배치의 구체적 내용은 (C)에서 비로소 제시되므로, (C) 없이 (B) 바로 뒤에 (A)가 오는 ②는 탈락한다.
- ④, ⑤: (C)의 “The key is that ~”은 진실한 정보가 의식에서 배제되어 무의식에 보관된다는 내용인데, 이는 자아가 정신 전체가 아닌 의식적 표면에 불과하여 숨겨진 정보가 ‘다른 곳’에 유지될 수 있다는 (B)의 내용을 전제해야만 성립한다. 그러나 주어진 글은 자기기만의 모순만 지적할 뿐 자아를 의식적 표면으로 재정의하거나 정보가 보관될 곳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B) 없이 (C)가 주어진 글 바로 뒤에 오는 ④와 ⑤는 탈락한다.

어휘

philosopher 철학자	self-deception 자기기만
contradiction 모순	in terms 용어상
at the outset 애초에, 처음에	hypothesis 가설
arrangement 배치, 준비	manipulate 조종하다, 다루다
cloud 흐리게 만들다; 구름	reality 현실
conscious 의식적인	onlooker 타인, 구경꾼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preferentially 우선적으로
exclude 배제하다, 제외하다	unawareness 무의식
counterintuitive 반직관적인	occupy 차지하다
precisely 정확히	region 영역, 지방

37

정답 ⑤

해석

좁은 정류장 간격은 커버리지 공백은 작아지지만 중복 커버리지 영역이 커짐을 의미한다. 넓은 정류장 간격은 그 반대를 의미하며, 둘 사이의 선택이 고정된 규칙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C) 어떤 정류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 여부는 정류장의 위치보다 그 주변 노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같은 정류장이라도 어떤 노선에서는 불만 없이 폐지될 수 있지만, 다른 노선에서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B) 이용량이 많은 노선에서는, 주변 수요로 인해 없어도 되는 정류장을 없애는 것이 그에 따른 비용을 몇 배로 보상하는 경향이 있다. 복구되는(절약되는) 때 1분은 여전히 탑승 중인 모든 승객에게 곱해져, 이제 더 멀리 걸어야 하는 소수의 사람이 없을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누적한다. (A) 그 차이가 가져다주는 것은 나중에, 더 짧아진 승차 시간이라는 형태로 도달하는 반면, 추가로 걸어야 하는 걸음은 즉시 체감된다. 이런 종류의 이득은 그 정류장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의 결과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행운으로 오인되기 쉽다.

해설

[정답 논리]

정류장 간격 선택에 고정된 규칙이 없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이유가 정류장의 존재를 가르는 기준이 위치가 아니라 이용 인구에 있음을 밝히는 (C)가 와야 한다. (C)는 같은 정류장도 어떤 노선에서는 불만 없이 폐지되지만 다른 노선에서는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를 이어받아 “이용량이 많은 노선”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짚어, 그런 노선에서야말로 정류장을 없애는 것이 탑승객 전체의 시간을 절약해 폐지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B)가 그 뒤를 잇는다. (B)는 그렇게 절약된 시간이 더 멀리 걸어야 하는 사람들의 손실보다 크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정류장 폐지가 만들어내는 이 차이(승차 시간 단축과 도보 거리 증가)는 손실 쪽이 즉시 체감되는 반면 이득 쪽은 나중에야 드러나기 때문에, 정류장 폐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는 (A)가 마지막에 이어진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 - (B) - (A)’이다.

[오답 논리]

①: (A)의 첫 문장 “What the difference brings arrives later ~”는 ‘승차 시간 단축’과 ‘도보 거리 증가’라는 구체적인 차이(the difference)가 이미 제시된 이후에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글은 정류장 간격 선택에 고정된 규칙이 없다는 일반적 진술만 할 뿐, 그 ‘차이’가 무엇 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A)가 주어진 글 바로 다음에 오는 ①은 탈락한다.

②, ③: 주어진 글은 “고정된 규칙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드물다”로 끝나, “왜 고정된 규칙이 없는가”라는 물음을 남긴다. 이에 답하는 것은 정류장의 존재가 위치가 아니라 주변 이용 인구에 달려 있다는 (C)인데, (B)는 이 원리 없이 곧장 “이용량이 많은 노선”이라는 사례로 들어가므로, (C) 없이 (B)가 주어진 글 바로 뒤에 오는 ②와 ③은 탈락한다.

④: (C)의 마지막은 같은 정류장도 노선에 따라 폐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A)의 첫 문장은 ‘승차 시간 단축’과 ‘도보 거리 증가’라는 차이를 전제로 그 인지적 비대칭(손실은 즉시 체감되고 이득은 나중에 드러남)을 다룬다. 이 차이는 (B)에서 “매 1분의 절약”과 “도보로 인한 손실”을 대조함으로써 비로소 제시되므로, (B) 없이 (C) 바로 뒤에 (A)가 오는 ④는 탈락한다.

어휘

spacing 간격	coverage 커버리지, 범위
gap 공백, 격차	duplicate 중복의; 복사하다
opposite 반대; 반대의	settle on ~로 정해지다, 결정하다
register 체감되다, 등록하다	mistake 오인하다, 착각하다; 실수
consequence 결과, 중요성	route 노선, 경로
remove 없애다, 제거하다	surrounding 주변의
dispensable 없어도 되는	
pay for 비용을 보상하다, 본전을 뽑다	
multiply 곱하다, 증식시키다	on board 탑승 중인
handful 소수, 한 움큼	redundant 불필요한, 정리해고된
cut 폐지하다, 자르다	complaint 불만, 항의
provoke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uproar 거센 반발, 소동

38

정답 ⑤

해석

식물이 자라는 방식은 그 자체로 식물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식물은 모듈식이다. 식물은 많은 마디에서 자라는데, 각 마디는 그 끝에 어떤 종류의 조직으로도 변할 수 있는 세포 덩어리인 분열조직(생장점)을 지니고 있다. 줄기세포처럼, 분열조직은 영구히 배아 상태에 있으며, 필요한 무엇이든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호르몬과 영양분으로 가득 찬 이 창의적인 세포 생성 지점들이 식물 지능의 자리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분열조직은 식물의 지속적인 전신 스캔의 결과를 감지한다. 식물은 가지를 뺀어 나가는 자신의 몸 각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그것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즉, 각각의 잎이 광합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뿌리가 수분을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만약 어느 한 가지가 제 몫을 하지 못하면, 그 가지는 생존을 유지하는 데 더 적은 자원을 받게 될 것이다. 분열조직으로부터의 성장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어느 가지가 계속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가지는 완전히 (자원 공급을) 차단당하여 시들도록 방치되는 반면, 식물은 자신의 에너지를 몸의 더 생산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데 재분배할 것이다.

해설

[정답 논리]

주어진 문장은 분열조직으로부터의 성장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식물이 각 가지의 광합성·수분 흡수 정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가지는 자원을 적게 받게 되는데, 그 줄어든 자원이나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는 ⑤번 자리 앞까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어서 ⑤번 자리 뒤에서는 계속 저조한 가지는 (자원 공급을) 완전히 차단당하게 되고 식물은 에너지를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분배(reallocates)한다고 설명한다. 표면적으로는 ‘자원 감소 → 완전 차단과 재분배’로 매끄러워 보이지만, 그 사이에 성장 자체가 다른 곳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중간 과정이 빠져 있다. 주어진 문장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자원 감소 → 성장 방향 전환 → 지속 저조 시 완전 차단과 재분배’라는 단계를 완성되므로, ⑤번 자리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논리]

①~④: 주어진 문장은 “성장이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는 결과를 가리키는 데, 이 결과가 성립하려면 먼저 어떤 가지가 제 몫을 못해 자원이 줄어든다는 원인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①~④번 자리는 모두 이 원인(자원 감소)이 등장하기 이전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원인 없이 결과만 먼저 제시되는 구조가 되어 부적절하다.

어휘

meristem 분열조직, 생장점	proceed 진행되다
evidence 증거	constant 끊임없는
self-awareness 자기 인식	modular 모듈식의, 모듈로 된
node 마디	tip 끝; 조인
cluster 덩어리, 무리	tissue 조직
stem cell 줄기세포	perpetually 영구히
require 요구하다	nutrient-packed 영양분으로 가득 찬
inventive 창의적인, 독창적인	intelligence 지능
ongoing 지속적인	scan 스캔, 정밀 검사
branching 가지를 뺀어 나가는	photosynthesize 광합성하다
absorb 흡수하다	moisture 수분
underperform 성과를 내지 못하다	block 차단하다; 블록, 구역
wither 시들다	reallocate 재분배하다, 재할당하다

39

정답 ④

해석

자신의 말에 따르면 항상 배은망덕과 몰인정과 배신의 피해자인 그런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흔히 대단히 그럴듯하게 말하며, 그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동정을 얻어낸다. 그들이 들려주는 각각의 개별 이야기는 대개 본질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그런 종류의 부당한 대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로 일어난다. 결국 듣는 사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피해자가 불운하게도 마주쳐 온 악인들의 그 절대적 다수이다. 확률의 원칙에 따르면, 특정 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대략 비슷한 양의 부당한 대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처럼 보편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원인은 그를 둘러싼 세상보다는 오히려 그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실제로는 겪지 않은 피해를 상상해 내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걸잡을 수 없는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해설**

[정답 논리]

주어진 문장은 확률의 원칙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대략 비슷한 양의 부당한 대우를 겪는다는 내용이다. ④번 자리 앞까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자체는 있을 법하고, 부당한 대우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 의심을 사는 것은 그가 마주친 악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라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런데 악인의 수가 많다는 것이 왜 의심스러운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주어진 문장은 사람들이 평생 겪는 부당한 대우의 양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통계적 기준을 제시하여 이 의문에 답한다. 이 기준이 주어지면, ④번 뒤 문장의 “보편적인 부당한 대우(universal ill-treatment)”가 곧 앞서 언급된 다수의 악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그것이 확률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인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따라서 ④번 자리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논리]

- ①, ②: 아직 “악인의 다수성”이라는 비교 대상 자체가 등장하기 전이므로, 통계적 기준이 먼저 나오면 무엇과 비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 ③: 악인의 다수성이라는 관찰이 먼저 제시되어야 그 다음에 통계적 근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근거가 관찰보다 먼저 나오게 되어 순서가 뒤바뀐다.
- ⑤: 이미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뒤에 그 근거가 되는 통계적 기준이 뒤따라오는 셈이 되어, 결론과 근거의 순서가 뒤바뀐다.

**어휘**

in accordance with ~에 따르면	principle 원칙
probability 확률	treatment 대우, 치료
account 말, 설명, 계좌	victim 피해자
unkindness 몰인정, 불친절	betrayal 배신
plausible 그럴듯한	secure 얻어내다, 확보하다; 안전한
sympathy 동정, 공감	separate 개별의, 분리된; 분리하다
relate 들려주다, 관련시키다	as a rule 대개, 통상적으로
inherently 본질적으로	ill-treatment 부당한 대우, 혹사
complain 불평하다	suspicion 의심
sheer 절대적, 완전한	multiplicity 다수, 다양성
villain 악인, 악당	universal 보편적인
likelihood 가능성	arouse 불러일으키다
uncontrollable 걸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의	
irritation 짜증, 자극	

40

**정답** ①

**해석**

박물관 전시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수집품과 재현이다. 재현은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물들을 배치하지만, 그 과정에서 큐레이터의 보완, 즉, 원주민 오두막의 정면, 그려진 배경, 마네킹 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자연사 박물관이 이러한 접근 방식의 전형적인 예이다. 사실적 자세로 보존된 표본들은 전시 케이스의 모래와 풀 사이에서 자신들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며, 사물 그 자체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전체적 상황의 진정한 복제물을 관람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집품은 어떤 자연적, 문화적, 혹은 역사적 총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시도 없이, 한 종류의 사물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 즉, 에스키모의 설피, 유화, 아프리카 가면 등을 한데 모아 분류한다. 질서는 외부 체계에 의해 부과되며, 그 결과는 흔히 공유된 특징에만 근거하여 의미가 존재하는 사물들의 재배열이다.

→ 재현은 사물들이 한때 속했던 본래의 총체성을 (A) 흉내 내려고 하는 반면, 수집품은 그 전체를 (B)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며, 사물들을 오직 그것들이 유연히 공유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해설**

[(A)에 대한 근거]

지문에서 재현은 사물들을 배치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한다고 하였고, 자연사 박물관의 사례에서는 보존된 표본들이 모래와 풀 사이의 생태

적 지위를 차지하며 “전체적 상황의 진정한 복제물”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재현은 사물이 원래 속했던 전체를 완벽하게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터의 보완(curatorial filling-in)을 통해 그 전체를 모사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A)에는 simulate(흉내 내다) 계열의 어휘가 와야 한다.

[(B)에 대한 근거]

지문에서 수집품은 “어떤 자연적, 문화적, 혹은 역사적 총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시도 없이”라고 하였고, 질서는 “외부 체계에 의해” 부과되며 그 의미는 “오직 공유된 특징에만 근거”한다고 하였다. 즉 수집품은 사물이 원래 속했던 전체(맥락)를 애초에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오직 사물들 사이의 공유된 특징에 따라서만 분류한다. 따라서 (B)에는 그 전체가 분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irrelevant(무관한) 계열의 어휘가 와야 한다.

[종합]

따라서 정답은 ① ‘simulate(흉내 내다) - irrelevant(무관한)’이다.

**어휘**

collection 수집품, 수집	re-presentation 재현
arrange 배치하다, 배열하다	object 사물, 대상
reconstruct 재구성하다	inevitably 불가피하게
curatorial 큐레이터의	filling-in 보완
native 원주민의, 태생의	mannequin 마네킹
exemplify 예시하다, 예증하다	preserve 보존하다
specimen 표본	posture 자세
occupy 차지하다	ecological 생태적인, 생태학의
niche 지위, 적소	authentic 진정한, 진짜의
by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sort 분류하다; 종류
attempt 시도; 시도하다	totality 총체성, 전체
order 질서; 명령하다	impose 부과하다
external 외부의, 외부 체계	scheme 체계, 계획
rearrangement 재배열	feature 특징; 특징으로 삼다
aim to ~하려고 하다, ~을 목표로 하다	
belong to ~에 속하다	treat 취급하다, 대하다
classify 분류하다	happen to 우연히 ~하다
recreate 재현하다, 되살리다	inherent 고유한, 타고난
arbitrary 임의적인, 독단적인	simulate 흉내 내다, 모의실험을 하다
irrelevant 무관한	refine 정제하다, 개선하다
explicit 명시적인, 명백한	obscure 모호하게 하다
trivial 사소한	

[41~42]

**해석**

광고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조작을 감지할 때 저항하게 되며, 탄산음료를 마시는 행복한 사람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광고주들은 다른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85년의 한 펩시 광고는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땀에 흠뻑 젖은 해변가 사람들이, 지붕 위 스피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펩시의 소리를 쏟아내는 밴을 향해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 광고는 “새로운 세대의 선택”이라는 문구로 끝맺는다. 그러나 “선택”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아이러니한데, 왜냐하면 그 광고는 해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의 또는 전혀 선택권이 없는 존재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광고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면 결코 저런 것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보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마음속으로 자신을 예외로 두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가장 면역된(→ 취약해지는) 순간이다. 펩시 광고를 홀로 지켜보는 시청자는 자신이 그 광고가 겨냥하고 있는 대중 소비자들을 초월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자신만의 이유라고 믿는 이유로 펩시를 더 사들인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대중과 분리해 준다고 느끼는 다른 무언가, 어쩌면 콧수염 같은 것을 소비할 것이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각 선택의 이면에 있는 논리는 동일한데, 그는 항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있으며, 항상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소비하고 있다. 모방이 미치는 범위에서 자신이 벗어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 자부심은, 그 게임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41

**정답** ②

**해설**

[정답 논리]

노골적 조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광고는 사람들이 “나는 절대 안 속는다”라고 믿게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스스로를 예외로 두는 순간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며, 시청자는 자신이 대중을 초월했다고 믿지만 결국 같은 비교·과시 소비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자부심이 자신이 그 게임에 연루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므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우리가 광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함정’이다.

[오답 논리]

- ① 전통적인 광고가 소비자 저항을 낮추는 이유 → 지문은 전통적 광고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명시하므로 논지와 맞지 않음.
- ③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르게 소비하기 → 콤포차는 차별화된 소비가 결국 동일한 비교 논리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차별화된 소비 자체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논지를 왜곡함.
- ④ 소비 이면의 고정된 논리로서의 비교 → 비교는 글 후반부에 제시된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일 뿐, 글 전체를 이끄는 핵심 주장(스스로 번역되었다는 착각)을 대체하지 못함.
- ⑤ 조작을 인식하는 것: 자율성을 향한 첫걸음 → 지문은 조작을 인식했다고 믿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라고 명시하므로 논지와 정반대.

42

**정답** ②

**해설**

(b) immune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은, 광고 시청자가 자신만의 이유라고 믿으며 웹시를 더 사들이고, 웹시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동기는 항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소비라는 점에서 같으며, 자신이 그 게임에 연루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서술한다. 이는 광고 시청자가 여전히 소비 논리의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주므로, 스스로를 예외로 두는 순간이 가장 번역된 순간이라는 (b)의 서술과 모순된다. 따라서 (b) immune은 vulnerable(취약한)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휘**

expert 전문가	resistant 저항하는
manipulation 조작	capture 마음을 사로잡다
tactic 전략, 전술	portray 묘사하다
soaked 흠뻑 젖은	helplessly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blast 쏟아내다, 폭발시키다	generation 세대
fall for ~에 넘어 가다	immune 면역된, 면제된
transcend 초월하다	target 겨냥하다
separate 분리하다; 분리된	logic 논리
identical 동일한	measure 비교하다, 측정하다
signal 드러내다; 신호	distinction 차별성, 구별
imitation 모방	blind 보지 못하게 하다; 눈이 먼

[43~45]

**해석**

(A) 밝게 불이 켜진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Mia는 한 번에 몇 개의 별보다 많은 것을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친구 Grace가 지역 천문대에서의 한 행사에 대해 Mia에게 말해 주었다. Mia는 토성과 그 고리들의 사진들만을 본 적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이 실제 망원경을 통해서 얼마나 다르게 보일지 궁금했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 Grace에게 물었을 때, Grace는 지역 천문대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녀의 질문에 더 잘 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Mia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렌즈를 통해 보일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고리들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D) 천문대는 Mia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붐볐다. 이미 두 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달을 위한 것이었고, 훨씬 더 긴 다른 하나는 토성을 위한 것이었다. Mia와 함께 기다리면서, Grace는 벽에 걸린 토성의 큰 사진을 가리키며 각 고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Mia에게 설명해 주었다. 바로 그때, 달 줄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별뿔별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외쳤다. Grace의 얼굴이 환해졌다. 줄에서 슬며시 빠져나가며 “그냥 잠깐만 보고 올게.”라고 그녀가 말했다.

(B) Mia는 혼자 줄에 남아, 달 줄 쪽을 훑어다녔다. 그녀 곁에서, 한 나이

든 여성이 그녀를 보고 대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Mia에게 자신이 매달 그 천문대에 오고 망원경이 이미지를 이백 배로 확대해 준다고 말하면서, 토성이 십억 킬로미터도 넘게 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차례가 왔을 때, Mia는 렌즈에 눈을 갖다 대고 응시했다. 그 고리들은 옅은 노란색 공주위를 둘러싼 가늘고 빛나는 띠처럼 보였다. 그녀는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잊고 싶지 않아서, 재빨리 공책을 꺼내어 자신이 본 것을 그렸다.

(C) 그녀가 막 끝마쳤을 때 Grace가 돌아왔다. Grace는 자신이 기다리는 동안 별뿔별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Mia는 그 스케치를 보여주고 싶어 자신의 공책을 내밀었다. 놀라움이 그녀의 친구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Grace는 그 그림이 벽에 걸린 사진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았다고 말했다. Mia는 그녀에게 그 나이 든 여성의 설명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행성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여전히 놀라워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Grace는 다음 달에 유성우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Mia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녀는 그들이 함께 그것을 보러 갈 수 있을지 곧바로 물었다.

43

**정답** ④

**해설**

(A)에서 Mia가 천문대 행사에 대해 듣고 망원경으로 본 토성 고리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끝나므로 실제로 천문대에 도착한 상황, 즉 천문대가 예상보다 붐볐고 달 줄과 토성 줄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D)가 와야 한다. (D)의 마지막에서 Grace가 “그냥 잠깐만 보고 올게”라며 줄에서 슬며시 빠져나갔으므로, 그 직후 상황인 ‘Mia가 혼자 줄에 남아’로 시작하는 (B)가 이어져야 한다. (B)에서는 Mia 곁에 있던 나이 든 여성이 말을 걸고, Mia의 차례가 되어 토성 고리를 직접 관찰한 뒤 공책에 스케치하는 내용이 전개되므로, (C)의 첫 문장 “그녀가 막 끝마쳤을 때 Grace가 돌아왔다”가 이를 시간상 정확히 이어받는다. 따라서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D) - (B) - (C)’이다.

44

**정답** ⑤

**해설**

(a) her는 Grace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누구보다 잘 답해 줄 것이라고 들은 질문의 주체인 Mia를 가리킨다. (b) her는 자신의 차례가 와서 렌즈에 눈을 갖다 댄 Mia를 가리킨다. (c) her는 “her friend’s face”에서 친구 (Grace)를 소유의 대상으로 가리키는 인물, 즉 Mia를 가리킨다. (d) she는 유성우 소식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 함께 보러 갈 수 있는지 물어본 Mia를 가리킨다. 반면 (e) she는 별뿔별을 보기 위해 줄에서 빠져나가며 “그냥 잠깐만 보고 올게.”라고 말한 Grace를 가리킨다. 따라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⑤이다.

45

**정답** ②

**해설**

(B)에서 “Beside her, an elderly woman noticed her and struck up a conversation.”이라고 했으므로, Mia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은 나이 든 여성이지 Mia가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어휘**

observatory 천문대	volunteer 자원봉사자
eager 간절한, 열망하는	Saturn 토성
glance 훑어다, 훑어 봄	
strike up a conversation 대화를 걸다	
magnify 확대하다	billion 십억
pale 옅은, 창백한	detail 세부 사항
capture 잡아내다, 붙잡다	meteor shower 유성우
crowded 붐비는	shooting star 별뿔별
slip out of ~에서 슬며시 빠져나가다	